

# 복권위, 공개방송·블록체인 도입 예정

### 내년부터 즉석복권에 도입...2006년 초까지 확대 적용 로또 관련 의혹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공개방송 진행

정부가 즉석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복권 조작 의혹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8월 스피드1000 등 즉석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판매·유통 및 당첨 정보 등 핵심 데이터가 암호화된다. 복권위와 복권수탁사업자도 당첨 복권 일련번호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다.

동행복권은 4기에 이어 5기 복권수

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31일까지 온라인·인쇄·결합·전자복권 등 국내 모든 종류의 복권을 맡아 운영·관리하게 된다.

복권위는 우선 5기 복권 수탁 사업자가 복권 사업을 맡는 내년부터 즉석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후 2026년 초까지 로또와 연금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전자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전자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친다.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인쇄복권 비중은 8.8%, 결합복권은 4.6%, 전자복권은 1.9%다. 로또가 포함된 온라인복권은 84.7%다.

내년 즉석복권에 전자복권까지 더해지면 전체 복권의 11%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셈이다.

복권위는 조작논란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권위는 로또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개방송도 진행했다. 지난 10일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 방송' 참가 행사에는 150명의 참

관인이 참여했다. 매주 방송에는 약 15명의 일반인이 참석하는데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6개월간 로또·연금방송 시청 경험이 없는 19세 일반인이다. 1704명이 몰려 추첨으로 선정됐다. 로또 추첨 방송에 앞서 1부 토크쇼에서는 '복권에 대한 궁금증, 과학과 심리학이 답하다'를 진행한다. 2부 추첨 준비 과정과 리허설을 직접 관람하고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을 방청했다.

로또 기계를 누르는 '황금순'에는 복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복권위는 향후에도 복권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여주소방, 소방서장 표창 수여식 개최

여주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4일 여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유공 관계자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소방, 여름 집중호우 대비 위험지역 현지확인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과 담양소방서 관계자들은 여름철 풍수해 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지 점검을 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전기차 화재집압훈련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집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화순소방,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서 구급분야 1위 차지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에 출전하여 1위를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경찰,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안전활동 집중 시행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나주 관내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 및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완도해경, 남해안 출몰한 백상아리...안전주의 요구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3일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백상아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광주 도심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 잇따라 훼손

### 16일 현수막 3개 사라지거나 찢겨, 수사 의뢰

16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에 걸린 진보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이 찢긴 채 방치돼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이 최근 잇따라 훼손되거나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수막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문구에 반대하거나 수산물 기피를 조장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18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구 광천·화정·농성동에 걸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 3개가 사라지거나 훼손됐다.

농성역 인근에 걸린 현수막은 찢긴 채 바닥에 방치됐다.

현수막엔 오염수 방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바다야 미안해 대통령 잘못 뽑아서, 후쿠시마 우렷 180배 세습검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고 지난 9일부터 15일 간 계침될 예정이었다.

당 관계자는 잇따른 현수막 훼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두고 당 측에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수산업 종사자 등의 반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수산업 종사자는 '세습 검출'과 같은 문구는 피해 발생 전부터 수산물 기피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우려했다.



일부 시민은 "방류수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수막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시민·상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훼손 흔적으로 보아 방류 반대 문구에 반발한 누군

가 고의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아닌 추측하지만 예단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기조는 변함없지만 문구에 대한 시민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가로등 전기설비 발화로 터전 잃어...法 "지자체 배상 책임"

### 완도군 가로등 연결용 전신주 점검 소홀로 발화 주택·창고 전소, 주민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용시설물인 가로등 연결용 전신주의 전기 설비에서 발화된 불이 주택을 모두 태웠다면,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는 A·B씨가 한국전력공사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완도군은 A씨에게 1억 1917만 원을,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책임만 일부 인정한 1심과 달리 완도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2019년 5월 18일 오전 4시에 완도군 자택에서 잠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긴급 대피했다.

이 불로 A씨의 주택과 창고가 모두 탔다. 화재 사후 뒤 '주변 전신주에 설치된 전기 설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된 불이 주택·창고로 확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다.

A·B씨는 전신주 점검·관리 소홀에

다른 화재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봤다며 한전과 완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 조화 결과 가로등 연결용 전신주의 전기 설비는 한전 동의 없이 설치됐다. 즉,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된 전기 설비를 한전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전에는 해당 전기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이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완도군은 가로등 연결용 전신주의 전기설비를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만큼, 가로등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주민들이 무단 설치했다더라도 공용시설물인 가로등을 철거하지 않고 가로등 번호를 부

여한 것은 무단 설치를 용인·관리한 것이다. 결국, 완도군이 가로등과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전기 설비의 점유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완도군은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았다. 설치·보존·안전 점검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완도군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신주 아래쪽과 주택·창고의 담벼락에 쌓인 물건들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완도군의 손해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무더위 속 보양식 먹으러 가는 사람들'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우산을 쓰고 대기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순천 아파트서 전동킥보드 발화 추정 '화재'

### 입주민 80여 명 급히 대피

18일 오전 0시 9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5층 가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2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해당 가구에 살던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 가구 내부 3㎡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4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밖에 입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종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